

## 2011.12.05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12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기후변화, 농림수산물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## □ 세부실천계획의 특징

-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속에서 국가 기후변화대응 선도
-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대응을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

## □ 주요 내용

## ○ (농정 추진방향) 기후변화대응을 농정의 주요 아젠다로 관리

- 기후변화 대응지표를 선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,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격상시켜 관리
- 기후변화대응위원회(위원장 : 농림수산식품부장관)를 통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감하게 투자
- R&D 투자규모를 2020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
-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는 농·어업인 및 경영체에 대해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시 우대방안 등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반영
  - ※ 시설현대화 사업 : 신재생에너지, 온실가스감축사료 사용 농어가 우선 지원

## ○ (기후변화 적응) 재해예방 및 온난화 시 생산력 제고

- (R&D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) '20년까지 1조원 규모의 R&D 추진 및 부·청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R&D 발굴기획단을 구성하여 10대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

※ 품종개발 계획: 벼 39종, 맥류 12, 사과 8, 무·배추 4, 어류 7, 해조류 2 등 127종

- (시설재배 확대) 시설재배 지원 대상을 현행 수출품목 중심의 원예전문 생산단지 위주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추 등 노지채소 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점차 늘려갈 계획

※ 고추 비가림시설 시범 지원 : 2012년 60ha, 72억원

- (아열대 소득작목개발) 2015년까지 아열대작물 15종(과일 5, 채소 10)의 재배적지 및 재배방법(시설, 무가온 시설, 노지) 등을 연구하여 농가에 보급

※ 아열대과수(5) : 망고, 골드키위, 용과, 아보카도, 퍼플 패션프루트

※ 아열대채소(10) : 아티초크, 쓴오이, 오크라, 열대시금치, 루버브, 차오테, 울금, 사탕무, 암빈, 공심채

- (농어업 기상정보 및 매뉴얼 제공)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및 재배 매뉴얼 개발

- 국내 식량생산예측, 주산지별 단기 국지성 기상예보, 실시간 작황관측, 병해충예보 등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농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가칭 "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"를 설치
- 농어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이상기상 대응 농수산물 재배 매뉴얼을 개발·보급('12년 140개 품목)하여 현장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

## ○ (온실가스 감축) 새로운 흡수원 개발 및 배출원 중점 관리

- (온실가스 감축 대책) 화확비료 사용량 감소 및 그린 사료 개발 보급
-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0년까지 10년대비 25%감축(232kg/ha → 174kg)하고, 상시 담수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을 43.8% 감축할 수 있는 물 걸러대기를 현재 50%에서 2020년까지 70%수준으로 확대
- 시설원에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지열 및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시설원의 유풀의존도를 현재 90%에서 '20년 70%수준으로 완화할 계획

- 소의 장내발효시 메탄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사료를 개발 및 보급
- **가축분뇨자원화율을 2010년 87%에서 2020년 98%까지** 높이고, 가축분뇨 에너지화비율도 2010년 1%에서 2020년 5%까지 제고
- (식품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 관리제) 식품부문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5.0% 감축하기 위해 2012년에는 26개 업체의 온실가스를 24천CO<sub>2</sub>톤 감축
  - '12년에는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추진하고,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최적가용기술(BAT : Best Available Technology)을 기반으로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역량을 높여나갈 예정
- **(탄소상쇄제 도입) 2012년에는** 지열, 펠릿보일러, 저탄소 녹색마을, 조림 및 재조림 사업 등에 대해 탄소상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감축 공인(公認)기술 매뉴얼을 개발·보급
- **(저탄소 농축수산물 인증제 도입) 2012년에는** 실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인 쌀(곡물), 상추(채소)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('12년 예산 : 4.5억원)이며, 단계적으로 인증품목을 확대할 계획
- **(탄소 흡수원 확대)**
  - (농업) 식물체 잔재물(벼짚, 나뭇가지)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농경지 토양 탄소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흡수원으로서 농경지 토양관리기술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려 토양 탄소 격리비율을 현재 60%에서 '20년까지 85%까지 제고할 계획
  - (산림)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2020 흡수전망치(29백만톤) 대비 6%(31백만톤)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조림, 재조림, 수종갱신(편백, 백합나무), 숲가꾸기 등을 확대
  - (수산) 해조류 등도 국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흡수능력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바다숲 조성을 확대

<b>주간농업 농촌동향</b>	<b>김장 무·배추 가격 안정 대책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본 자료는 지난 1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농식품부, 김장용 무·배추 10만톤 시장격리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### □ 주요 내용

- **11.25~12.10일까지 김장 배추를 정부가 직접 구매하고 김치제조업체에서 무·배추 저장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**
  - (정부구매) 농수산물유통공사(aT)를 통해 2천톤을 구매·저장한 다음 한파 등으로 인하여 공급량이 줄어들 경우 가격안정에 활용
  - (구매 자금 지원) 김치제조업체가 무·배추 2만 4천톤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구매자금 51억원을 긴급 지원
- 무·배추 가격지지를 위해 11.25~12.15일까지 산지농협을 통한 **시장격리 물량도 6만 5천톤 추가하여 10만톤**으로 확대
  - 지난 11월 23까지 농협 계약재배물량 3만 5천톤(배추 30천톤, 무 5천톤)에 대해서 시장격리를 실시하였으나, 시장격리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
    - 배추 5만톤과 무 1만5천톤 등 6만5천톤을 추가로 산지에서 격리한 다음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여부를 신중적으로 조절
    - 이번에 추가로 시장격리 하는 배추는 농협과 계약재배한 물량뿐만 아니라 계약하지 않은 물량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
      - ※ 배추 계약재배 물량에 대해서는 최저보장가격(608천원/10a)을 지원하고, 계약하지 않은 물량은 수확작업비 수준(450천원/10a)을 지원
      - ※ 무는 계약재배 물량에 한정하여 시장격리하며, 최저보장가격(588천원/10a) 지원
- 아울러 농업인은 품위 저하품의 시장 출하 자제, 소비자는 김장 3포기 더하기 협조 당부